

“교육재정 근간 흔드는 일방적인 개편안 반대”

교육감협,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시도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미래대응기금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 등 주장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

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

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총액이 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

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9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로 미래대응기금을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또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오상근기자

소규모 학교 교육격차 해소

‘전북 올봄(ALL)학교’ 내년 운영학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북 올봄(ALL)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027년 전북 올봄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오는 9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전북 올봄학교는 강사 확보와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전북형 방과후학교 모델이다. 학생들은 학기 중은 물론 여름·겨울방학에도 비용 부담 없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2018년 14개교를 시작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초등학교 237개교와 중학교 58개교 등 총 295개교에서 올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봄학교는 전 학년 완전 무상 교육을 핵심으로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자 부담금을 없애 학생들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신해 강사와 위탁업체 모집·선정·계약, 예산 평가, 예산 편성·지출, 서류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직원들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어촌 학교의 강사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거리 출강 강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농산어촌 지역에 출강하는 강사에게 교통비를 지원 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2027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익자 부담금이 없는 6학급 이하 학교, 중학교는 전교생 60명 내외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은 뒤 대상 학교와 프로그램 운영 규모를 확정하고, 교육지원청별 강사 및 위탁업체 선정·계약 등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내 40개 거점학교에서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2학기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도내 40개 거점학교서 94개 강좌에 고교생 1122명 참여

김제·원주 권역에 새 강좌 개설, 지역 교육기회 격차 해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해 2026학년도 2학기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이날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내 40개 거점학교에서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여러 학교가 연계해 함께 개설하고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별 여건에 따른 과목 개설의 한계를 보완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2학기 공동교육과정에는 도내 고등학생 1,122명이 참여한다. 전주고등학교와 남원고등학교 등을 비롯한 40개 거점학교에서 총 94개 강좌가 개설된다. 강좌별로는 오프라인 수업이 67개, 온

라인 수업이 27개다. 오프라인 강좌에는 ‘그림 다수’, ‘물리학 실험’ 등이, 온라인 강좌에는 ‘세계 문제 미래 사회’, ‘도시의 미래 탐구’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전주 28개, 군산 12개, 익산 12개 강좌가 운영된다. 1학과와 비교하면 강좌 수는 17개(22%), 참여 학생은 126명(12%) 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더욱 확대됐다. 특히 김제여자고등학교와 상산고등학교 등 8개 학교가 신규 거점학교로 참여한다. 그동안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았던 김제·원주 권역에도 새로운 강좌가 개설되면서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문대학 산학협력 발전 기여 직원 22명 표창

전문대학 산학협력 현장에서 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에 기여한 유공직원 22명이 표창을 받았다. 한국전문대학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회장 조덕현)는 지난 20일 대전 솔레르호텔에서 열린 2026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시상식에서 전문대학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유공직원 2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대학 산학협력 현장에서 산학협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상과 한국전문대학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장상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산학협력단과 양커사업

등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비롯해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 성과 창출과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덕현 회장은 “산학협력의 성과는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실무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며 “이번 표창이 산학협력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유공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산학협력 성과 공유회에서는 양커사업과 초광역사업 우수사례 발표, 산학협력 주요 현안 토의 등이 진행됐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AI 시대 선도하는 전대인’

전북대,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1638명 새출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삼성문화관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1,638명의 졸업생을 사회로 배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본부 보직자와 학무위원, 역대 총장단, 최병선 총동창회장, 조지훈 전주시장, 졸업생과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총장은 이날 188명의 박사과 418명의 석사, 1,032명의 학사 등 모두 1,638명의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또한 이시훈 학생(공과대학) 등 90명의 우수 졸업생에게 상장을, 김지훈 학생(사범대) 등 19명에게는 핵심인재임을 의미하는 핵심인재상

을 수여했다. 또한 연구력이 탁월한 가네쉬바리하리다리(공과대학) 학생 등 46명에게 우수연구상도 전했다. 이날 양오봉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AI 시대를 선도할 주역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AI 시대에 맞는 인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양 총장은 “대학 졸업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여러분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AI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당당히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경쟁력은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데 있지 않고, AI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성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며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인재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AI는 정보를 만들고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신뢰를 만들거나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 즉 신뢰받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AI는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라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어줄 도구”라며 “꿈꾸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인간 다음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갖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북대인이 되어 달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신흥중고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 선정

총사업비 90억9000만원 투입… 국비 28억500만원 확보

전주 원도심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교육부가 주관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전주 신흥중·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립학교인 호남기독교학원이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북교육청과 전주시가 협력해 추진한 사업으로, 민·관·학이 함께 지역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 신흥중·고 학교복합시설은 총

사업비 90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교육부 사업지원비 28억500만 원을 확보했다. 시설은 연면적 1,85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개방형 도서관과 스타디오키친, 인공지능(AI)·로봇 등 디지털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선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학교복합시설을 원도심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교육 등 생활 인프라를 제공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오상근기자

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사업 선정은 천호성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통합형 지역문화 복합시설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시설과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도내 곳곳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통합형 지역문화 복합시설 조성을 도내 전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전북교육청, 제8기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8기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전북교육청은 감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8기 시민감사관을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조사·평가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3일까지다. 법률·회계·시설·건축·환경·보건·감사 분야 등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한 뒤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자격·경력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kwysman01@jbdu.kr) 또는 등기우편(전주시 완산구 송곡개로 351 세종빌딩 6층 감사관), 방문 제출이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지원자의 자격요건과 전문성·경력, 시민감사관 직무에 대한 이해도, 활동 의지와 감사활동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위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8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수련원에 입교한 학생과 교직원에게 참여해 가운데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진행했다.

다. 학생들은 교육용 영상을 통해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익히며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어 화생방 상황 등 특수 재난에 대

비한 방독면 착용 교육과 실습도 실시했다. 학생들은 방독면의 구조와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방독면을 착용하며 비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혔다. /오상근 기자